

內傷病에 대한 形象醫學的 치료 -脾胃疾患을 중심으로-

강경화 · 김형규¹ · 김경철 · 이용태*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 동의대학교 한의학연구소, 1:경희대학교 내과학교실

Treatment on Internal Damage Disease in Hyungsang Medicine

Kyung Hwa Kang, Hyung Kyu Kim¹, Kyung Chul Kim, Yong Tae Lee*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Research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1: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Review on internal damage disease(disease of the spleen and stomach) in Hyungsang medicine is as follows; In case of woman, Disease of the spleen and stomach is caused mostly a excessive thought. In case of man, Disease of the spleen and stomach is related to the genitals's disease for man is based on the kidney and body. In shapes of the Jung(精), Ki(氣), Shin(神) and Hyul(血), the seven feelings(emotions) in the Ki(氣) and Shin(神) types and deficiency of essence and blood in the Jung(精) and Hyul(血) types induce mostly diseases of the spleen and stomach. Treatments are used frequently to promote the normal flow of Ki(行氣), promote digestion and remove food stagnancy (消導), resolve phlem(化痰) and check upward perverted flow of fire(降火) in the Ki(氣) and Shin(神) types and tonify the essence(補精), tonify the blood(補血) and replenish Ki(補氣) in the Jung(精) and Hyul(血) types. The main parts to appear outside diseases of the spleen and stomach are face color, depression condition of eyes, lips' condition, LU10 (魚際)'s color and the rise and fall of flesh etc. Shapes of the six meridians have to treat to divid shapes and symptoms of the six meridians according to "deviation of Ki and blood" and "the expression part of symptoms".

Key words : Hyungsang Medicine(形象醫學), internal damage disease

서론

內傷에서 內의 형상학적 개념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진 부분 또는 性情, 중심체, 臟腑 등을 뜻하며¹⁾ 여기에서의 組織, 運行的 病變이 惹起된 상태를 內傷病이라 한다. 許²⁾는 內傷病을 飲食傷과 勞倦傷으로 구분하고 勞倦傷은 다시 勞力傷, 勞心傷, 房勞傷으로 구별하고 원인은 정신과 육체의 疲勞, 嗜欲의 무절제, 음식과 약물의 부적절한 섭취를 언급하면서 치법으로 補氣升提, 滋陰, 降火를 주장하였다. 內傷病은 이처럼 그 영역이 광범위하고 원인이 다양하며 증상의 발현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므로 이에 관한 올바른 診斷, 治療방향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비단 內傷病에만 局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臨床에서 여러 질병을 진단, 처방할 때 공통으로 느끼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內傷病은 주로 脾胃疾患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脾胃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형상적 요소는 남녀로소,

精氣神血, 五臟六腑, 脾胃와 관련된 身形 및 六經形 등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구조와 기능상 서로 밀접한 상응관계를 가지면서 동시적 질병 상태를 나타낸다. 形象醫學은 形象에 드러나 있는 形態, 機能, 性情, 色の 矛盾點, 즉 흠을 찾아 그 속에 내재된 臟腑의 병리를 추구하여 적합한 치법과 처방을 찾고 올바른 양상을 돕는 체계화된 한의학 교유의 이론이다.

이에 저자는 실제 임상에서 脾胃疾患을 치료할 때 어떠한 형상적 시각에서 診斷, 治法, 처방이 운용되었는지 그 실례를 살펴본 바 형상의학적 관점이 중요함을 인식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본론

1. 脾胃疾患과 관련된 形象理論

形象이 五臟六腑를 낳고, 五臟六腑가 身形을 형성하고, 身形이 經絡을 이룬다. 脾臟은 土(辰戌丑未)에 속하는데, 四時와 五臟

* 교신저자 : 이용태,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동 산 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ytleee@dongeui.ac.kr Tel : 051-850-8635

· 접수: 2002/06/07 · 수정: 2002/07/12 · 채택: 2002/08/01

1) 東醫實錄國譯委員會 編譯, 國譯增補 東醫實錄, 서울, 南山堂, 1996, p. 65.
2) 許浚, 東醫實錄, 서울, 南山堂, 1976, p. 428.

의 개념으로 脾臟은 四時의 변화를 순차적으로 원활하게 바꾸는 주요한 역할을 함으로 형상을 주관하는 바탕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인체를 천지로 나누어 보면, 天의 四象 즉 耳目口鼻는 胃에 속하고 地의 四象 즉 四肢는 脾에 속한다. 脾가 馬蹄와 같다는 말은 손발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脾臟은 成體의 근본이다. 天의 四象은 냄새를 맡고 맛을 알고 음식을 가리고 잘 익었는지를 안다. 이 중에서 한 기능이라도 나쁘면 즉 먹이사슬을 잘못 선택한 胃가 나쁜 것이다. 즉 밥통이 나쁜 것이다. 地의 四象은 운행시킨다. 즉 갈아서 消磨시킨다. 이것은 팔다리가 움직임으로써 이루어진다.

脾胃의 動靜은 머리를 쓰면 몸은 靜하고 몸이 動하면 머리가 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입맛은 좋는데 소화가 안 된다면 이것은 天의 四象은 괜찮고 地의 四象에 病이 온 것이다. 또 음식 맛이 없고 냄새를 못 맡는다면 이것은 天의 四象이 나빠서 음식을 가리지 못해서 病이 온 것이다. 두 가지 모두 나쁜 경우는 머리가 靜하고 手足이 動해야 하는데 이것이 모두 動하거나 靜하면 積聚와 같은 病이 생기는 데 이것은 脾胃가 不和한 것이기 때문에 平胃散을 쓴다. 脾胃가 不和하여 어지럽다면 脾胃가 허약하여 온 것이므로 半夏白朮天麻湯을 쓴다. 운화는 脾屬이니 手足이 成體의 근본이다. 耳目口鼻와 手足 두 가지 모두 나빠서 오느냐 허약하느냐 實하느냐하는 것이다. 耳目口鼻와 手足을 너무 쓰면 勞倦傷으로 보고 補中益氣湯을 쓰고, 신경을 너무 써서 즉 머리를 너무 써서 五臟機能이 鬱하면 火鬱湯을 쓴다. 食後에 팔다리를 안 쓰면 食後昏困이 온다. 이런 관점에서 脾胃疾患을 풀어가야 한다.

사람이 생존하는데 불가피한 조건은 크게 外的條件과 內的條件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外的條件은 개체의 시간, 공간, 방위, 장소에 따른 風雨寒暑이며, 內的條件은 飲食, 居處, 喜怒, 陰陽에 의한 장부의 변화이다³⁾. 이러한 內的條件 중에서 脾胃는 사람이 먹지 않고 숨쉬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한다는 입장에서 인신의 근본이며, 중심 즉 中央土의 개념이 형성된다. 脾는 흙으로 빚어 외적 형틀을 유지하게 하고⁴⁾, 胃는 그 형틀을 채우는 내용물을 化氣, 化血하여 결국 脾胃가 上下, 前後, 左右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人體는 脾胃의 運化機能을 통하여 인체의 영위가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四時 晝夜의 변화에相應하게 된다. 결국 얼굴,四肢,몸통 등 인체의 모든 부분을 脾胃의 의미가 내포되어있다.

脾胃의 疾患을 惹起하는 條件들을 形象醫學적 觀點에서 살펴보면 첫째, 精氣神血의 形態와 性情的인 면에서의 모순, 둘째, 男女老少의 性別,年齡의 모순으로 形成되는 脾胃機能의 盛衰. 셋째, 脾胃와 다른 臟器 즉 心肺 肝腎의 相互 組織,運行的 關係로 나타나는 病變. 넷째, 脾胃의 經絡으로 연결되는 身形의 病症. 다섯째, 耳目口鼻의 氣勢로 드러나는 六經과 脾胃의 相關性으로 분류된다.

男女老少는 인간 존재의 四大形態로서 남자의 형상은 黑長肥剛⁵⁾하며, 그 性情은 發散性으로 燥⁶⁾하며, 耳目口鼻중의 코가

발달⁶⁾어 마시는 것을 좋아하며, 五臟으로는 精을 爲主로 하니 胃이 중심⁷⁾이 된다. 따라서 男子의 脾胃病은 發生頻度가 女子에 비해 적고 만약 脾胃病을 앓게 되면 重症이다. 또한 男子는 生殖器가 나빠서 脾胃疾患이 發生하는 경우가 흔하다. 女子는 그 形象이 白短瘦柔한 존재로서, 그 性情은 收斂性으로서 濕하고, 입이 발달되어 씹어 먹는 것을 좋아하며, 血을 爲主로 하므로 胃가 중심이 된다^{5,7)}. 그리고 女子는 脾胃病이 흔한데, 그 이유는 그 性情이 收斂하고 육체보다는 精神우선으로 발달되어 있으므로 思慮過度로 인한 七情, 七氣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男子같은 女子, 女子같은 男子에게는 嘈雜을 비롯한 脾胃疾患이 자주 發生한다. 老人은 근본적으로 年齡上 津液이 말라가고 血이 衰弱하며⁸⁾ 元氣가 虛하므로 飲食吸收능력이 低下된다. 그러므로 老人은 飲食을 적게 먹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食傷症이 유발되기 쉽다. 또한 老人의 食生活 法度는 溫補⁹⁾해야 하고 야채,과일 등 生冷物을 적게 攝取해야 한다¹⁰⁾. 小兒가 아프면서 자라는 現象은 臟腑가 脆嫩¹¹⁾하고 血氣가 아직 盛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脾胃의 先天本病이 오기 쉬우므로 面色, 耳目口鼻의 흙 등을 잘 살펴야 한다. 즉 面黃하고, 입술의 形態의 異常與否의 觀察이 우선이다. 脈¹²⁾과 手耳 등의 寒熱관계를 잘 살펴야 하니, 手掌熱은 內傷, 手背熱은 外感, 耳冷은 內傷, 耳熱은 外感이 된다.

精氣神血은 머리와 耳目口鼻의 形態로서 존재물의 씨앗, 種子¹³⁾에 해당하고 ○ □ ▽ ⊙ 의 4가지¹⁴⁾ 圓方 모양으로 나누고, 運行上으로는 口-精, 鼻-氣, 眼-神, 耳-血¹⁵⁾으로써 나누어진다. 圓方의 속성은 보편적으로 圓은 動하는 것을 주로 하고 方은 靜하는 性質이라 精氣神血과 脾胃病의 관계는 精血과는 虛證이 오기 쉬우므로 補精, 補血, 補氣가 기본이고, 氣, 神氣는 鬱滯에 起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行氣, 解鬱, 化痰, 降火, 消導하는 方法으로 治療에 임해야 한다. 五臟六腑에서 五臟은 精神, 血氣, 魂魄을 간직하여 滿而不實¹⁶⁾하고, 六腑는 水穀을 消化해서 津液으로 만들며, 實而不滿¹⁷⁾하다 하였으며, 五臟病은 虛實症이 主가 되고, 六腑病은 寒熱症의 與否가 관건이다. 脾臟은 水穀을 消化하고 입술의 형태상 好惡과 그 주름살로 大小, 高低, 正偏, 剛柔¹⁸⁾의 상태

6)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Ⅴ,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248, 353.
7)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Ⅴ,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47.
8)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p. 81.
9)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p. 81.
10)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p. 439.
11)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p. 632.
12)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p. 291.
【人迎氣口脈】左手關前曰人迎右手關前曰氣口兩關之後一分即曰神門故脈法讀曰肝心出左脾肺出右腎與命門俱出尺部魂魄神皆見寸口(東垣)○關前一分人命之主左爲人迎右爲氣口神門決斷兩在關後故曰人迎緊盛傷於寒氣口緊盛傷於食此兩脈有內傷外感之辨也(岐贊)
13)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Ⅲ, 서울, 芝山出版社, 1997, p. 311.
14)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Ⅲ, 서울, 芝山出版社, 1997, p. 403.
15)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Ⅳ,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211.
16)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p. 137.
17)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Ⅲ, 서울, 芝山出版社, 1997, p. 311.

3)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Ⅰ, 서울, 芝山出版社, 1996, p. 381.
4)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Ⅳ,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93.
5)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Ⅴ,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57.

를 알 수 있으며, 그 色은 黃色으로 나타난다. 胃는 收納¹⁹⁾을 담당하고 肉脈의 상태로 胃의 厚薄(寒熱), 大小(虛實)을 판단한다. 脾胃와 다른 臟器의 관계는 脾는 心肺를 담당하고, 胃는 肝腎을 주관하는 左右 氣血論을 이루어 清濁, 肥瘦를 形成하고, 또한 脾는 肺腎, 胃는 心肝 관계로서 엮어지는 內外論으로 長短, 燥濕의 現象이 나타난다²⁰⁾. 身形은 脾의 足太陰과 胃의 足陽明의 經絡이 이루는 部位로 얼굴은 土의 개념으로 눈의 上臉은 胃, 下臉은 脾, 입술의 上脣은 脾, 下脣은 胃, 上齒齦은 胃, 下齒齦은 大腸²¹⁾에 屬한다. 배는 中央土의 범주에 屬하는데, 太陰 少陰 厥陰의 上中下 區別은 陰陽²²⁾이요, 左右의 瘀血 食積은 氣血이다. 四肢는 人體 四大 中心軸인 中脘의 가지이므로 脾胃의 領域이다. 그러므로 魚際가 붉으면 胃中熱이요, 푸르면 胃中寒이다. 또한 肌肉은 땅의 흙과 같으니 脾의 性狀과 같고 乳房은 陰陽經이 經過하는 곳으로 男子는 肝腎 女子는 肝胃이다²³⁾. 身形은 形象이 큰 것이 病인데, 外見上 四肢의 얇고 두꺼움, 上下臉의 突出이나 陷沒, 乳房의 大小, 배의 나오고 들어간 상태, 입술의 厚薄, 肌肉의 盛衰, 魚際의 색깔 등의 條件이 脾胃의 機能과 밀접한 關聯을 맺고 있다.

六經形症은 주로 머리와 四肢의 經絡論으로 氣血의 大小 偏差가 나타나고, 그에 따라 六經의 形象이 눈, 코를 중심으로 升降의 氣勢로 이루어진다. 각각의 形象은 太陰-눈↓코↓, 太陽-눈↑코↑, 少陰-눈↑코↓, 少陽-눈↓코↑이며²⁴⁾ 陽明은 前面 發達形, 厥陰은 陷沒形이다. 그리고 各形에 따른 氣血의 多少관계는 陽明은 多氣多血, 太陰, 少陰, 少陽은 多氣少血, 太陽, 厥陰은 多血少氣이다²⁵⁾. 六經病은 外部의 風寒暑濕燥火 六氣가 人體에 侵入할 때 각각 그 발달된 經을 따라 六經形으로 오는데 脾胃病과 關聯이 많은 六經形은 그 六經중 陽明과 太陰이 많이 차지하는데, 陽明形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부풀어 오른 形象으로 눈꺼풀이 두툼하고, 입술이 두터우며 顔面이 넓고, 突出形이면서 乳房이 크고, 肌肉이 盛하다. 많이 나타나는 病症은 過食으로 因한 食積, 頭風, 胃風, 食積嗽, 食厥中風, 多汗, 關節痛 등이다. 또한 土侮木의 관계로 肝虛하기 쉽다. 太陰形은 濕土가 中心이므로 濕의 性質은 不收不舒하여 上腹의 太陰部位가 悶쳐서 胸痞, 胸脇苦滿이 多發하고 手足痺症이 자주 나타난다.

2. 臨床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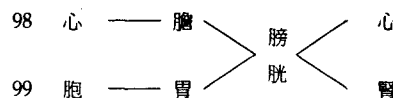
本稿에 收載된 30개의 治驗例는 그 대상이 1996~1998년 사이에 芝山先生任과 함께 진료한 患者를 중심으로 실제 임상현장을 그대로 서술하였으며 서론에서의 脾胃疾患 六大要素의 순서에 따라 기록하였다.

1) 男女老少·形態·性情의 矛盾에 의한 脾胃疾患

- 18)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V,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297.
- 19)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p. 143.
- 20)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p. 143.
- 21)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p. 246.
- 22)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p. 274.
- 23)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p. 273.
- 24)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V,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145.
- 25)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VI,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69.

[治驗例 1] 이○○ (남자 8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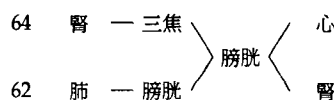
- 形色 : 입술 乾燥. 눈의 上眼臉이 厚. 입을 벌림.
- 脈 :



- 症狀 : 배가 아프고 코가 막힌다. 두드러기가 많이 난다. 코피가 가끔 남. (腹診上) 아랫배가 나오고 단단함.
- 治療 및 經過 : 小建中湯 (1998. 2. 14. 來院) (1998. 2. 19. 來院) 5일분 服用後 코피 나지 않고, 배가 아픈 것이 호전됨. 두드러기는 조금 줄어든 듯 하지만 그대로 임. 그대로 5일분 투여. (1998. 2. 24. 來院) 5일 복용 후 腹痛 없어지고 두드러기가 많이 줄어들.
- 考察 : 이 患者는 입술을 벌리고, 입술이 乾燥한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腹診上 아랫배가 단단한 것은 下腹의 律動이 안 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腹部의 律動作用 微弱으로 머리와 四肢에 氣血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코피, 두드러기가 나는 것이다.

[治驗例 2] 박○○ (남자 68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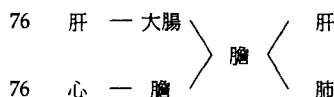
- 形色 : 입이 작다. 코↓. 얼굴에 살이 없음.
- 脈 :



- 症狀 : 허리 아프고 다리가 저림. 눈이 침침하고 귀가 멍멍하고, 입맛이 없다.
- 治療 및 經過 : 滋陰降火湯 (1998. 10. 17. 來院) (1998. 10. 27. 來院) 밥맛이 돌아오고 활동하기에 좀 편해졌다. 그대로 투여.
- 考察 : 이 患者는 얼굴에 살이 없고, 입이 작으니 陽盛陰虛形이다. 本人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體質인데 요즘은 매일 힘이 없어 드러누워 있다고 한다. 補陰시켜야 한다.

[治驗例 3] 최○○ (남자 12세)

- 形色 : 안경(近視). 魚際靑. 口唇乾燥. 왼쪽 귀 처짐.
- 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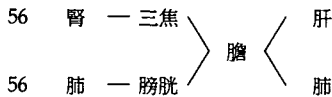
- 症狀 : 아랫배가 자주 아프고, 消化가 느리게 되면서 泄瀉한다. 평소 자증을 잘 낸다. 왼쪽 陰囊이 오른쪽 보다 매우 크고 단단함.
- 既往歷 : 左睪丸 血管腫 (1998. 6. 10)
- 治療 및 經過 : 蟠葱散 加 小茴香 3.0 沙蔘 2.0 川楝子 1.5 (1998. 7. 11. 來院). (1998. 7. 25. 來院) 아이 아버지가 아직은 陰

囊이 단단하지만 크기는 조금 작아졌다 함. 그대로 투여. (1998. 9. 26. 來院) 음낭 크기가 훨씬 축소되어 좌우가 비슷하고 부드러워졌음. 소화가 잘 되는가 확인하고 그대로 투여.

· 考察 : 이 患者는 배와 生殖器 사이에 寒이 結聚된 寒疝症²⁶⁾이다. 그래서 陰囊을 따뜻하게 풀어주는 藥을 썼다.

[治驗例 4] 김○○ (여자 48세)

· 形色 : 얼굴이 맑지 못하고 鬱. 男子처럼 몸집이 크고 어깨 넓음.
· 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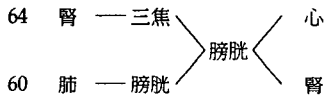
· 症狀 : 消化가 덜 되며, 月經이 막힌다. 3개월 전부터 生理가 없다. 小便이 개운치 않으며 大便도 시원치 않다. 가슴이 답답하면서 팔 다리 저리다.

· 治療 및 經過 : 二陳湯 加厚朴 · 枳實 · 三稜 · 蓬朮 (1998. 3. 14 來院). (1998. 3. 28 來院) 上記증상 전부 好轉, 단 生理는 계속 막힘. 溫經湯 투여.

· 考察 : 이 患者는 男子 같이 생긴 女子이다. 中焦氣滯²⁷⁾로 三焦가 막히어 通하지 않는 것이다.

[治驗例 5] 정○○ (남자 30세)

· 形色 : 입이 두툼하고, 지각과 볼이 발달된 氣科(□)
· 脈 :



· 症狀 : 消化 안된지 오래 되었다. 포경 수술, 군대에서 했다. 1주일 전 병원에서 내시경검사 하고 난 후 가슴 막히고 消化가 안된다. 泄瀉하거나 2일에 한 번 大便 봄. 병원에서 콩팥 나쁘다 하고, 陰囊濕疹 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저녁 12時 경에 식사하고 라면을 많이 먹었다.

· 治療 및 經過 : 八味丸 30日 分 투여 (1998. 9. 11. 來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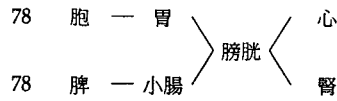
· 考察 : 이 患者는 生殖器의 힘이 弱하고 차서 消化가 안 되는 경우이니, 즉 下元의 陽이 衰한 경우²⁸⁾에 屬한다. 그리고 배 부르거나 땀이 날 때 性生活하지 말고 또한 욕심부리지 말라고 당부함.

2) 精氣神血의 形과 그 性情과 연관된 脾胃疾患

[治驗例 6] 박○○ (여자 36세)

· 形色 : 氣科. 코에 살이 없고 날카롭다. 목소리 가늘다. 손바닥 짙이 남.

· 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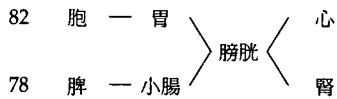
· 症狀 : 배가 차가워서 더운 날에도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해야 시원함. 아랫배가 팽기면서 中脘부위가 항상 아프다 함. 손발이 차면서도 열이 나고, 더우면 옷 벗고 추우면 옷 꺼입음. 미식거리면서 윗배가 꼬르륵거리고 泄瀉,便秘 교대함. 6년 전 미국에 살 때 헤리코박터 10일 복용함.

· 治療 및 經過 : 香砂養胃湯 (內傷) (1998. 9. 12. 來院) (1998. 9. 26. 來院) 모든 症狀이 호전되었으나 中脘 部位 痛症은 아직 덜 풀렸음. 그대로 투여 함. 음식 급하게 먹지 말라 함.

· 考察 : 中脘은 四肢의 中心軸²⁹⁾인데 그 기능이 좋지 못하여 煩熱症이 나고 배가 아픈 것이다.

[治驗例 7] 이○○ (여자 41세)

· 形色 : 氣科. 검다. 볼과 입 주위 기미. 목소리 굵다.
· 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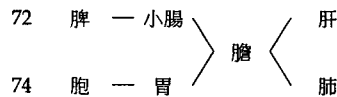
· 症狀 : 얼굴이 맑지 못하다 언제부터 그랬나? 여드름 많이 나서 治療받고 햇빛 본 후 그렇다. 얼굴이 우울하면 火病인데? 그렇습니다. 소화는 오래 전부터 안 되는 편이다. 배에 무언가 들어 있는 것 같이 부듯하다. 신물이 나서 담배를 피운다. 대변 매일 못 본다. 성대가 붓는다. 입안에 침이 마른다.

· 治療 및 經過 : 六鬱湯 加 山楂 · 神曲 · 麥芽 1.0 (1998. 8. 15. 來院)

· 考察 : 이 患者는 얼굴이 鬱했다. 이것은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다. 氣가 鬱하면 消化가 안되고 浮腫과 脹滿이 오기 쉽다³⁰⁾.

[治驗例 8] 김○○ (여자 33세)

· 形色 : 神科. 눈이 큰데 안경 씌. 눈 밑에 痰飲 형상.
· 脈 :



· 症狀 : 말이 빠르다. 마음이 편치 못하다. 脾胃상한 일은 7월에 머리 아팠는데 그 때 시야가 흐려지고 그후 頭痛 嘔吐 어지러웠다. 30분간 쓰러졌음. 헛배 가스는 차지 않음. 神經外科에서 頸椎捻挫라 함. 지금은 진땀 나고 어지럽고 하품 나고, 트림 자주 함. 頭痛은 없다.

· 治療 및 經過 : 香砂平胃散 20첩 복용 (1998. 8. 1. 來院)

26)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p. 311.
27)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p. 92.
28)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p. 436.

29)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p. 298.
30)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p.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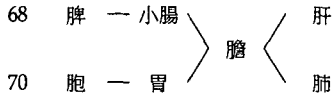
(1998. 8. 13. 來院) 약 복용 후 마음이 편해지고 트림 없어짐. 그대로 투여.

· 考察 : 神科로 마음이 편치 못하여 脾胃不和로 痰火가 온 것이다.

[治驗例 9] 전○○ (여자 19세)

· 形色 : 精科. 얼굴색이 浮澤. 뚱뚱하고 어깨 넓음.

· 脈 :



· 症狀 : 자고 나면 뿌연게 부었다가 오후 되면 검어지나? 모르겠다. 항상 무겁고 小便 시원치 않고 관절통 있으며, 머리가 맑지 못하다. 자고 나면 눕고 싶으며, 가슴 밑이 아프고 소화도 되지 않는다. 엉치가 아프다 하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한다.

· 治療 및 經過 : 人蔘養胃湯 (1998. 4. 4. 來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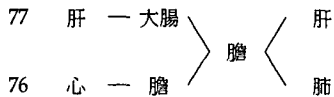
(1998. 4. 18. 來院) 모든 症狀 호전되었음. 한 번 더 그대로 투여. 考察 : 이 학생은 精科이면서 濕體니 몸이 항상 무겁고 팔다리가 아프고 消化 안 되는 것이다. 즉 脾主四肢에 屬한다. 飲食주의가 필요하니 사이다, 콜라, 아이스크림, 오징어, 회를 못 먹게 해야 한다.

3) 五臟六腑의 疾患과 관계된 脾胃疾患

[治驗例 10] 박○○ (남자 13세)

· 形色 : 瘦人. 人中 짧다. 팔다리 가늘다.

· 脈 :



· 症狀 : 밥은 그런 대로 먹는 데 잘 안 내려간다. 아랫배 아프고, 배가 누른듯 아프고 토한다. 수술 받은 적이 있음.

· 既往歷 : 1996년 7월에 盲腸手術 받고 腹膜炎으로 다시 手術, 그 후 腸癒着으로 3回 手術 받았음. 최근 1998. 3. 5에 세 번째 수술 받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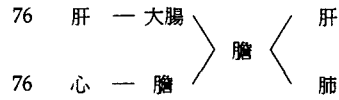
· 治療 및 經過 : 黃芪十補湯 (1998. 5. 9. 來院). (1998. 6. 20 來院) 그사이 캄프 갔다가 腹痛 泄瀉 했다. 그 사이에도 한 번씩 아팠다. 토하지는 않았고, 수술 部位 많이 아픔. 加味十全湯 투여

· 考察 : 胃가 차면 腸이 비고 腸이 차면 胃가 비어야³¹⁾ 하는데 이 아이는 手術 받은 영향으로 大腸에서 飲食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手術 받았으므로 大腸과 大腸 사이가 접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배가 아프고 만한다. 黃芪十補湯은 大腸을 울동시키는 藥이고 加味十全湯은 수술부위를 아물게 하는 약이다.

[治驗例 11] 정○○ (남자 60세)

· 形色 : 눈이 陷沒. 脣赤. 聲濁.

· 脈 :



· 症狀 : 재작년부터 연속 부도 맞아 병이 났다. 기침, 泄瀉 안 함. 음식 맛있음. 밥 먹고 드러눕고 싶지않지만, 조금 나른한 편임. 消化 안되고, 배가 아프다. 3年前 신경 쓰고 下血. 올 봄 다시 부도로 신경 쓰고 나서 더부룩 언친 듯 함. (腹診上) 배에서 북소리 남 (부은 것)/ 右腹痛 → 食積이다.

· 주의사항 : 過食하지 말고, 食後 30步이상 걸어라 지시함.

· 治療 및 經過 : 大異香散 (脹滿) (1998. 6. 6. 來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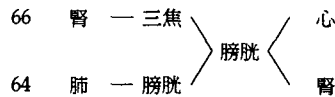
1998. 7. 11 來院 (患者 曰) 약 먹고 열이 나면서 가렵다. 옛날의 痛症 그대로 본다. 痛症은 아편 맞듯 없어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없어진다. (복진) 타진해보니 부은 것 많이 빠짐. 香砂六君子湯 20첩 투여. 1998. 8. 29 來院. 痛症은 조금 줄어듦. 아직 배가 더부룩한 불편감은 있음. 男子 病중 脹滿등은 쉽게 잘 낫지 않는다. 그 점을 잘 알아야 한다. 喘, 泄瀉 이유 없이 살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脹滿 아직 있으므로 香砂六君子湯 그대로 투여. 1998. 9. 12. 來院. 배가 땅기고 아픈 것은 많이 좋아짐. 그러나 gas가 차고 결린다. 아침 먹고 나면 하품 난다. 下腹痛이 심하다. 脹滿 문진은 大小便부터 始作해야한다. 대변은 요즘 잘 나간다. 배가 활동을 잘 하는 것이다. 香砂養胃湯 20첩 투여

· 考察 : 脹滿은 얼굴과 눈과 四肢가 浮腫하지 않아도 腹肚가 불려서 일어나고 속이 비어서 북과 같은 症이다. 아픈 것은 實證이다³²⁾. 이 사람은 몇번의 부도로 神經을 많이 써서 온 氣脹³³⁾으로 본 것이다. 大異香散에서 香砂六君子湯으로 變方한 것은 아랫배의 gas를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治驗例 12] 이○○ (남자 28세)

· 形色 : 氣科. 地閣이 사각형으로 각진 얼굴, 눈과 입이 발달.

· 脈 :



· 症狀 : 1998. 5. 10. 위출혈로 위궤양 診斷받고 수술 받았다. 지금도 수술자극 선명함. 포경 수술함. 원래 陰囊 아픈 적이 있었다. 음낭 오른쪽이 육안적으로 확인될 정도로 처져 있음.

· 治療 및 經過 : 加味十全湯 (1998. 7. 11. 來院)

(1998. 8. 1. 來院) 대체로 편하다. 그런데도 수술 部位가 가끔씩 땅길 때가 있다. 여름은 心旺腎衰³⁴⁾한 계절인데 원래 콩팥이 차가운 體質이므로 회복이 더욱 느릴 것이다. 콩팥의 寒冷한 것을 治

32)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p. 501.

33)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p. 502.

34) 東醫寶鑑國譯委員會 編譯,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6, p. 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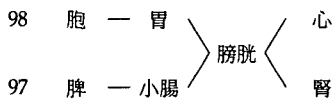
31)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p. 137.

療하는 藥을 써야한다. 八味丸 30일 투여. (1998. 9. 19 來院) 丸藥 먹고 머리가 어지럽고 胃가 쓰리고 트림 나고 거북했다. 이것은 수술부위가 같은 아물었으나 胃부위가 아물지 않아 아직도 제자리 잡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加味十全湯 투여.

· 考察: 남자 氣科의 특징은 아랫배와 종팔이 寒冷하고 氣虛한 것이다. 이 患者도 生殖器가 차서 消化가 안되고, 大便도 아물지 못하다. 즉 밑의 火力이 弱하여 滲瀉의 滲을 익히지 못하는 現狀과 같다.

[治驗例 13] 이○○ (남자 29세)

· 形色: 얼굴 길다. 코가 길다. 입이 발달. 魚際靑.
· 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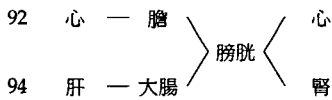


· 症狀: 원래 잘 먹는 편이다. 泄瀉는 다른데서 한약 먹고 泄瀉했다. 소화 안되고, 무릎 關節痛 腰痛 턱이 항상 빠근하다. (잘 벌어지지 않는다.)

· 治療 및 經過: 補脾湯 (1998. 6. 20. 來院) (1998. 7. 11. 來院) 關節 좀 어뎠는가? 무릎은 부드러운데 턱과 腰痛은 잘 모르겠다. 飲食은 좀 당긴다. 그대로 20첩 투여
· 考察: 입이 발달된 것이 특징이다. 五臟病의 脾臟의 病症³⁵⁾으로 본다.

[治驗例 14] 정○○ (여자 18세)

· 形色: 입술이 마르고 희다. 魚際靑
· 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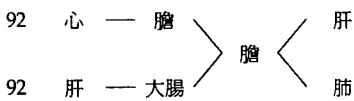


· 症狀: 편식하고 요즘 살이 조금 쯤 편이다. 원래는 말랐다. 배가 자주 아프다. 어릴 때 腸이 꼬여 입원했던 적 있다. (복진) 배꼽 아래에 痛症.

· 治療 및 經過: 理中湯 (1998. 5. 9. 來院)
· 考察: 魚際가 푸르다는 것은 배가 차다는 말이다. 배꼽 아래 쪽은 厥陰부위이니 理中湯을 써야한다.

[治驗例 15] 선○○ (여자 43세)

· 形色: 매우 흰 편. 肥人. 觀骨大. 눈 밑 痰飲형상.
· 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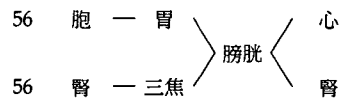
· 症狀: 속이 미식 거림. 답답하고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이 든

다.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면서 熱이 올랐다가 오싹한다. 胃가 안 좋아서 껌껌 트림하고 목이 답답하여 왔음.

· 治療 및 經過: 行氣香蘇散去 麻黃 加 神曲·檳榔·枳實 1.0 (1998. 6. 6. 來院). (1998. 7. 4 來院) 藥먹고 많이 편해졌다. 藥 먹 는 동안 생선회 먹고 조금 고생했다. 이 병에는 생선회, 사이다, 콜라등 찬 것 날것 좋지 않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대로 투여
· 考察: 痰飲은 津液이 津液化 되지 못하는 것이다³⁶⁾. 이 사람은 痰飲의 形象과 症狀이 전부 갖추어져 있다.

[治驗例 16] 염○○ (남자 34세)

· 形色: 瘦人. 天垂象
· 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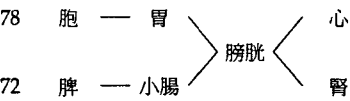


· 症狀: 피로하다/ 잘 때 숨이 차서 잠깨지 않나? 아니요. 가슴 옆구리 결리고 답답하고, 배아프고 泄瀉 자주 한다.

· 既往歷: 보름 전 3번째 氣胸 앓았음.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
· 治療 및 經過: 小柴胡湯 加 青皮·川芎·赤芍藥·草龍膽 1.0 (胸門). (1998. 8. 1 來院)
· 考察: 아주 마르고 얼굴 측면이 가늘고 긴 사람이다. 氣胸은 다른 사람에게 온다. 側面이 발달된 것은 病이 少陽經을 타고 들어온다는 뜻이 숨어있다. 小柴胡湯은 前後의 中間인 側面을 조절 해서 中和시켜주는 약이다.

[治驗例 17] 박○○ (여자 55세)

· 形色: 瘦人. 키가 크다. 입이 아물지 못하고 약간 벌어진 形. 觀骨발달. 안경.
· 脈:



· 症狀: 안경 언제부터 썼나? 얼마 안되었다. 속이 쓰리고 가슴이 아프다. 속이 느글느글 거리고 미식 거린다. 소화가 안 되고, 자극성 음식 들어가면 쓰리다. 짜증이 자꾸 난다.

· 治療 및 經過: 香砂平胃散 (1998. 11. 28 來院) (1998. 12. 19 來院) 모든 상태가 良好하며 한 번 더 복용하고 싶다함.
· 考察: 키가 크다는 것은 男子 같은 女子로 마음이 鬱滯되기 쉽다. 입이 아물지 못한 것은 胃의 收納작용이 弱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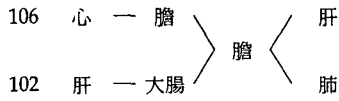
5) 脾胃疾患과 相應하는 身形

[治驗例 18] 정○○ (남자 65세)

· 形色: 瘦人(너무 말랐다). 魚際陷沒. 色敗. 입이 삐뚤어짐.
· 脈:

35)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p. 143.

36)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V,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153.



· 症狀 : 말을 하려면 혀가 둔하고 혀가 잘 들지 않나? 예. 원래 허리 아팠나? 예 /팔에 살이 다 빠졌다. 지금 먹지 못해서 못 살겠다. 입맛을 못 느낀다.

· 既往歷 : 1995年 5월에 中風 앓아 지금 말을 잘 못한다. 1996年 10月 直腸膿瘍 (直腸內 5cm 정도)手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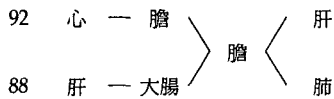
· 治療 및 經過 : 參苓白朮散 (1997. 9. 27. 來院)

· 考察 : 許의 肉門의 難治症에 「肉이 脫落하고 몸이 運行하지 못하면 難治다」³⁷⁾하였는데 이에 해당된다. 힘이 없고 못 먹는데 脈이 100회 이상 나온다는 것은 고치기 어렵다고 본다.

[治驗例 19] 김○○ (여자 20세)

· 形色 : 목이 나왔다(Adams' apple). 코가 높고 길다.

· 脈 :



· 症狀 : 소화 잘 안되고 손이 차가운가? 예/ 生理 불규칙하고 生理痛 있나? 심하게 아프다. 손발이 매우 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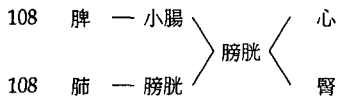
· 治療 및 經過 : 香砂養胃湯 (1998. 7. 18. 來院) (1998. 8. 15. 來院) 소화 좀 되고 손발은 여름이라 변화를 느끼지 못하겠다./ 生理는 예정일 3~4일 남았다. 그대로 투여

· 考察 : 목이 나왔다는 것은 任脈이 좋지 못한 것이다. 任脈이 나쁘면 그 經路인 목, 胃, 胞가 전부 기능이 약화된다. 이 사람의 경우는 이에 해당된다.

[治驗例 20] 민○○ (여자 48세)

· 形色 : 頭大. 印堂 찡그림. 面色이 黃

· 脈 :



· 症狀 : 熱도 나고 寒氣도 나면서 뼈마디가 쭈시고, 머리 정수리 부위가 많이 아프다. 기침 가래는 없다. 감기 기운 느끼면서 臀部痛. 便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는데 고통스럽다. 1994년 4월경에 左太陽穴 部位痛으로 오래 동안 고생했다.

· 治療 및 經過 : 二陳湯 加 酒芍· 梔子· 黃連· 蒼朮· 羌活 1.0 (1997. 5. 5. 來院). 1997. 5. 24 來院 ; 머리는 많이 편해지고, 便秘는 이번 藥 먹고 2~3日 한 번 보고 좋아 졌다. 그대로 투여 1997. 6. 21. 來院 ; 이번은 요번 月요일부터 기분 나쁜 일이 있어 계속 못 먹었다. 들어가면 머하고 飲食 냄새도 싫다./ 굉장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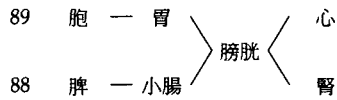
어지럽다.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飲食이 몸에 걸려 내려가지 않는다. 化痰清火湯 투여.

· 考察 : 머리가 큰 여자는 남자 같은 性格이 있어 제멋대로 하려는 사람이다. 印堂을 찡그린 것은 마음이 편치 못한 것이다. 그래서 痰火에서 온 嘈雜으로 보고 化痰清火湯을 썼고 처음에는 頭風³⁸⁾으로 보고 二陳湯加味方을 썼다.

[治驗例 21] 이○○ (남자 43세)

· 形色 : 下眼胞가 어둡다.

· 脈 :



· 症狀 :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가슴 두근거리며, 가슴 갑갑하고 한숨 나오고 트림이 나오고 나오지 못하면 답답하다./ 熱이 올랐다 내렸다 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3~4개월에 한 번 정도 어지럽다./ 트림 안 날 때는 구역질이 난다. 中脘 복진은 괜찮다.

· 既往歷 : 20년 전에 더운 날 땀 많이 흘리고 나서 곧바로 머리를 찬물에 집어 넣은 적 있다.

· 治療 및 經過 : 加味二陳湯 (1998. 6. 20. 來院). 1998. 7. 11. 來院 ; 한숨 나고, 트림 나는 것이 好轉됨. 그러나 가슴 갑갑한 것은 아직 남아 있다. 그대로 투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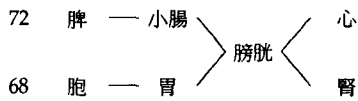
· 考察 : 눈 밑에 痰飲形症이 있고 불안하고 가슴이 갑갑한 것은 氣痰³⁹⁾이다. 날것 찬 것 먹지 말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한다.

6) 六經形과 脾胃疾患

[治驗例 22] 공○○ (여자 48세)

· 形色 : 太陰形. 눈썹 진함.

· 脈 :



· 症狀 : 오른쪽 옆구리가 끊어질듯 아프다. 빈속에 더 심하다. 배에 gas가 찬다. 消化도 안되고 가슴 갑갑함. 배도 더부룩함.

· 治療 및 經過 : 香砂六君子湯 (1998. 7. 18. 來院) 1998. 8. 15. 來院 ; 藥먹고 옆구리 결린 것, gas 차는 것이 편해 졌다.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특히 가슴 갑갑한 느낌은 아직 남아 있다. 그대로 투여.

· 考察 : 太陰은 濕이 中脘에 鬱滯 되기 쉬운 體質로 胸膈苦滿과 手足痺症이 잘온다. 六經證은 痼疾病이라 한다. 그 말은 모든 병이 그 해당 經絡으로부터 始作 된다는 뜻이다.

[治驗例 23] 이○○ (여자 47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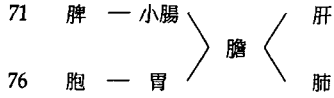
· 形色 : 太陰. 뚱뚱한 편

37) 許波,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p. 289.

38) 許波,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p. 201.

39) 許波,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p. 130.

· 脈 :



· 症狀 : 더부룩하고 답답하다. 3年間 胃炎을 앓고 있음./ 항상 몸살기운 있고 몸이 무겁다. 팔다리도 저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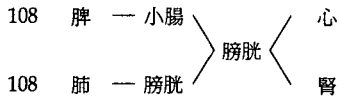
· 治療 및 經過 : 藿香正氣散 加 木瓜 1.5 (1998. 2. 27. 來院)
1998. 3. 13. 來院 ; 몸살기운이 풀렸다. 많이 좋아 졌는데 소화가 아직 덜됨. 藿香正氣散 加 山楂 · 神曲 · 檳榔 · 枳實 1.0

· 考察 : 太陰은 不收不舒하여 濕이 中央土에 멎는 形이다. 그러므로 이 患者는 消化가 되지 않고 四肢로 氣血의 流通이 안 되는 것으로 본다.

[治驗例 24] 김○○ (여자 40세)

· 形色 : 少陰形

· 脈 :



· 症狀 : 熱이 올랐다가 으쓱하게 춥다. 속이 쓰리고 아프다./ 오른쪽 엉치가 더 아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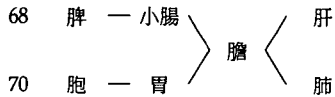
· 既往歷 : 1985년 10월 子宮 나팔관 제거 수술
· 治療 및 經過 : 正傳加味二陳湯 (1997. 4. 26. 來院)
1997. 5. 10 來院 ; 몸이 좀 어떤가? 소화 잘 되고 엉치도 좀 나아졌다. 脈이 96-95로 아직 정상이 아니다. 그대로 투여.

· 考察 : 少陰形이니 手少陰과 足少陰이 나쁘다. 그래서 엉치가 아픈 것이다. 脈이 100회 이상이니 子宮 수술 받은 部位에 다시 炎症이 있을 수 있다. 수술 받은 부위에 생긴 대체물이 고장을 일으킨다. 胞-胃 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본다.

[治驗例 25] 강○○ (여자 58세)

· 形色 : 陽明. 陰盛陽虛形 (몸은 뚱뚱한데 기운 없는 形)

· 脈 :



· 症狀 : 식사하고 졸려서 밥상 치우기도 힘들다. 저녁에 잠은 깊지 못 잔다. 이 病 뇌두면 脹滿이 오고, 그 다음에는 關節이 아플 것이다.

· 治療 및 經過 : 蓼朮湯 (1997. 7. 19. 來院)
1997. 9. 6. 來院 ; 약 먹고 몸이 가벼워지고 잠도 잘 잤는데 요즘 조금 피로해지는 것 같아 다시 왔다. 그대로 투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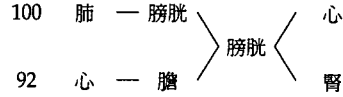
· 考察 : 食後昏困症⁴⁰⁾이다. 즉 脾胃가 조절되지 않아서 心脾의

氣運이 四肢로 運行되지 않는 것이다.

[治驗例 26] 김○○ (여자 47세)

· 形色 : 厥陰形. 눈이 움푹 들어감. 검은 얼굴

· 脈 :



· 症狀 : 가끔 가슴 갑갑하고 거북하고, 머리 맑지 못하며 뒷골이 항상 무겁다./ 무릎 관절이 약하고 손바닥 발바닥 열이 낮다가 차다 한다. 머리 무겁고, 뻣뻣하고, 배가 차다. 병원에서 惡性 貧血로 診斷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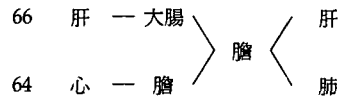
· 治療 및 經過 : 當歸四逆湯 (1998. 7. 18. 來院)

· 考察 : 手足이 차다 더웠다 하고, 눈이 움푹 들어간 것과 아랫배가 아픈 것은 厥陰形症이다.

[治驗例 27] 신○○ (여자 53세)

· 形色 : 머리 눈 귀 맑지 못하다 -- 濕, 肥人

· 脈 :



· 症狀 : 자고 나면 붓고 그때 손발도 뻣뻣하다. 허리가 많이 아프다./ 밥먹고 졸리거나 눕고 싶고, 늘상 눕고 싶으며 소화가 안된다. 깊이 잠자지 못한다. 왼쪽 다리 아프다. 몸도 차고 소화 안된다.

· 既往歷 : 3年 前 子宮 들어왔다.

· 治療 및 經過 : 人蔘養胃湯 加 山楂 · 神曲 · 檳榔 · 枳實 1.0 (1998. 1. 24. 來院). 1998. 2. 14. 來院 ; 맥이 많이 좋아졌다 소화 많이 편해졌다. 다리도 전보다 많이 나아졌으나 아직 겨울이라 그런지 몸이 많이 차다. 그대로 투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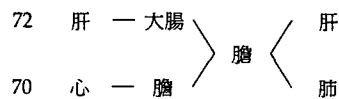
· 考察 : 中脘은 四肢를 관장한다. 脾胃가 消化를 못시키니 濕이 造成되고 四肢로 흘러가지 못해 關節이 아픈 것이다. 濕이 있으면 益氣 升陽이 안 된다.

7) 脾胃疾患外 內傷 臨床例 -- 藥物中毒 治驗例

[治驗例 28] 나○○ (남자 13세)

· 形色 : 天垂象. 面靑. 鼻위주

· 脈 :



· 症狀 : 偏食한다. 밀가루 좋아한다. 배가 자주 아프다. 다리 아프다. B형 肝炎으로 인터페론 주사 6개월 맞았고, 또 외제 인터페론 4개월 맞았음. 病 발견하게 된 동기는 2년 전 어지럽다고 학교에서 왔다 병원 가서 診斷결과 간염진단 받았음. 腹筋緊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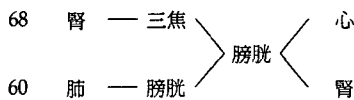
40) 許滋,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p. 435.

되어 있다. 짜증 잘 내고 손톱도 물어뜯는다. 찬물 많이 먹지 말아야 한다. 皮肉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붙지 않았다. 편식시키지 말아야 한다.

- 既往歴 : 心中膈缺損症 없었다.
- 治療 및 經過 : 養胃進食湯 · 紫金錠 (1996. 10. 12. 來院)
1996. 10. 26. 來院 ; 밥 좀 먹는다. 밥을 먹어야 肝機能 좋아진다. 養胃進食湯 투여
- 考察 : 이 아이는 肌肉이 빠졌다. 그래서 살을 붙게 해야 한다. 가을에는 살이 썬겨 겨울을 이기는데 이 患者는 살이 썬지지 않았다. 面色이 푸른 것은 臟象論에 대입하면 肝이 나쁜 것이다. 그리고 洋藥을 오래 동안 주사했으니 毒素가 體內에 많이 생겼다고 본다. 그래서 그 毒素를 除去해야 한다.

[治驗例 29] 손○○ (남자 47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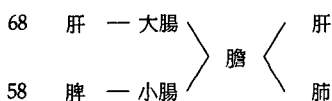
- 形色 : 입술이 붉다. 이마에 기미. 面側이 붉다.
- 脈 :



- 症狀 : 갈증 나고 밥 먹어도 허기진다. 하루 4끼 먹어도 부족하다. 살도 안찐다 새벽에 허기짐./ 땀 많이 흘리고 大便은 하루에 2번 泄瀉 잘함. stress 많이 받음./ 飲酒 후에 신물난다.
- 治療 및 經過 : 生津甘露飲 (1996. 10. 12. 來院)
- 考察 : 입술이 붉은 것은 精이 涸竭되는 것이니 二陽病⁴¹⁾으로 본다. 胃와 大腸의 二陽에 熱이 많으니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고 신물이 난다.

[治驗例 30] 이○○ (여자 50세)

- 形色 : 肥人. 陽明. 顴骨 발달. 남자 같은 여자
- 脈 :



- 症狀 : 飲食 잘 먹고 머리는 그전에 아팠으나 지금은 괜찮다./ 심장이 벌떡벌떡 뜬다. (補虛飲) 우울하고 熱이 얼굴로 달아오르며, 심장이 두근거리고 최근에 消化 잘 안된다. 가슴이 두근거림을 호소.
- 既往歴 : 1983년에 子宮 들어냄
- 治療 및 經過 : 補虛飲 (1998. 2. 28. 來院)
1998. 3. 14. 來院 ; 가슴이 빠근하고 답답하다. 몸이 저린다. 소화 안되고 밥맛이 없다. (芝山先生 曰) 혹시 洋藥 많이 먹지 않았나? 高血壓 약 오래 먹고 있다. 紫金錠 20丸 투여
- 考察 : 이 사람은 洋藥의 中毒이니 한약이 듣지 않고 있다. 解毒시켜야 한다. 그리고 약이 바뀌어 심리적 불안도 있다.

41)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p. 506.

고찰

본론에서 서술된 여러 가지 이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男女老少와 脾胃疾患

1) 男子

黑長肥剛 / 燥 / 鼻발달 / 精위주로 頭大身小 腎中心 / 脾胃病 여자보다 重함 / 生殖器와 關聯된 脾胃病이 多 / 形盛氣衰⁴²⁾ -- 補氣 補精⁴³⁾

2) 女子

白短瘦柔 / 濕 / 口발달 / 血위주로 頭小身大 胃中心 / 思慮過多로 因한 脾胃病 多 / 氣實形衰⁴⁴⁾ -- 行氣 消導 化痰 降火⁴⁵⁾

3) 老人

精血의 衰弱 / 元氣衰 / 적게 먹어야 한다. / 溫補 / 특히 야채 과일 등 生冷物 적게 攝取해야 함.

4) 小兒

變症 : 아픈 것은 자라는 과정이다. / 臟腑脆嫩 / 先天病이므로 耳目口鼻의 形象 色中心 / 外感 內傷 分別 -- 手掌 耳 迎庭이 / 人迎 · 氣口脈

2. 精·氣·神·血과 脾胃疾患

存在物의 形 種子 씨앗 / 圓·動 虛, 方·靜 實 / 精(○), 氣(□), 神(▽), 血(⊙) → 形態 / 口-精, 鼻-氣, 眼-神, 耳-血 → 機能 / 脾胃疾患 治療

精·血(○⊙) - 補氣, 補血, 補精 / 氣·神(□,▽) - 行氣, 解鬱, 消導

3. 五臟六腑와 脾胃疾患

· 臟象論- 色과 耳目口鼻의 大小 高低 正偏 剛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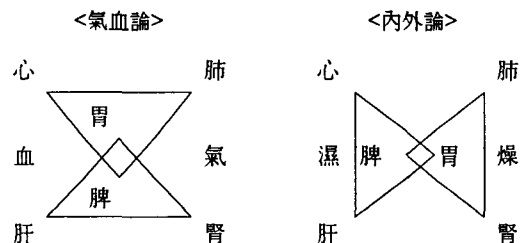
· 五臟 - 精神과 血氣 및 魂魄을 간직, 滿而不實

· 六腑 - 水穀消化로 津液 생성, 實而不滿 / 五臟病 - 虛實, 六腑病 - 寒熱

· 耳目口鼻의 形態, 大小, 高低, 正偏, 剛柔로 나타남.

· 脾 - 消磨, 胃- 收納 / 胃 - 化氣 化血, 脾-氣血運行⁴⁶⁾

· 脾胃 - 中央濕土 / ·脾胃와 心肺肝腎의 關係



42)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VI,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35

43)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II, 서울, 芝山出版社, 1997, p. 6

44)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VI,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35

45)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II, 서울, 芝山出版社, 1997, p. 6

46)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p. 149.

47)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 서울, 芝山出版社, 1996, p. 31

48)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p. 378.

4. 身形

- 큰 것이 病이다.
- 얼굴 - 土의 개념
- 腹 - 中央濕土의 개념
 - ┌ 陰陽 - 上-太陰, 中-少陰, 下-厥陰
 - └ 氣血 - 左: 瘀血, 右: 痰飲
- 四肢 - 中脘軸의 가지
- 上眼臉 - 胃, 下眼臉 - 脾, 上脣-脾, 下脣-胃
- 上齒齦 - 胃, 下齒齦 - 大腸
 - 乳房
 - ┌ 男 - 肝腎
 - └ 女 - 肝腎
- 身形과 脾胃病
 - 四肢의 長短, 肥瘦 / 上下眼臉의 突出, 陷沒狀態 / 腹의 나 오고 들어간 形態 / 입술의 大小, 高低, 正偏, 剛柔 / 肌肉의 盛衰 관계 / 乳房의 大小 / 魚際의 색깔

5. 六經形

- 六經論⁴⁷⁾ / 十二經脈 - 四肢 머리, 奇經八脈 - 몸통
- 六經形은 十二經絡의 氣血多少가 나타나고 病도 氣血偏差로 일어남.
- 形象은 眼鼻(葉)의 氣의 升降으로 드러남.
- 太陽 - 眼↑鼻↑, 太陰 - 眼↓鼻↓, 少陰 - 眼↑鼻↓ 少陽 - 眼↓鼻↑
- 六經形 氣血多少 / 太陽, 厥陰 - 多血少氣, 太陰, 少陰, 少陽 - 多氣少血
- 陽明 - 多氣多血 / 癩疾病⁴⁸⁾ / 六經形을 쫓아서 病이 들어옴.
- 脾胃疾患 多發하는 六經形 -- 太陰 陽明

形象醫學의 측면에서 脾胃疾患에 관한 이상의 고찰을 살펴 보면, 脾胃疾患은 인간의 형상과 내외적 조건에 따라 치법과 치방이 多樣하다.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첫째, 남녀의 경우 남자는 그 性情이 흠어 버리는 힘이 강하므로 음식의 경우도 잘 滯하거나 막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러나 육체가 정신보다 발달되어 있으므로 기허 상태가 심화되면 消化障礙가 유발될 수 있다. 남자의 脾胃疾患에서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경우는 疝症을 비롯한 여러 가지 生殖器疾患에서 드러나는 消化器障礙이다. 반면 女子의 本性은 收斂

性이 強하고 精神이 肉體를 제압하는 特徵이 있다. 그러므로 女子의 消化器疾患은 七情, 七氣 등 思慮過度가 되기 쉽고, 이에 따라 痰火가 쉽게 造成되고 嘈雜, 胃脘痛, 怔忡, 梅核氣 등 여러 가지 症狀이 隨伴된다. 둘째, 精氣神血과 脾胃疾患의 사이에서는 氣科·神科는 血虛有火 氣鬱이나 氣滯에서 많이 생기는데, 行氣 解鬱 消導 化痰위주로 治療하고 精, 血科는 氣虛濕痰하기 쉬운 形象으로 補氣, 除濕하는 治療法이 우선이다. 셋째, 身形은 脾胃의 形態와 機能이 外部的으로 發顯되는 곳인데이에 해당하는 部位는 眼臉, 입술, 乳房, 魚際, 四肢의 形態 等이다. 넷째, 사람은 外的條件과 內的條件의 影響下에 살아가는데 風 雨寒暑는 外, 飲食, 居處, 喜怒, 陰陽은 內的條件이 된다. 六經形은 外的條件이 六經의 發達된 經路를 따라 들어가서 病을 일으키는데 脾胃疾患은 前面이 발달된 陽明과 脾胃經絡이 屬한 太陰經에서 多發한다.

결 론

內傷病(脾胃疾患을 中心으로)에 對한 形象醫學의 考察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脾胃疾患은 女子의 경우에 脾胃와 精神爲主로 이루어졌기에 思慮過多로 인한 原因이 많았다. 脾胃疾患은 男子의 경우에 腎이 根本이고 肉體가 바탕이므로比較的 적지만 生殖器疾患과 많은 關聯이 있었다. 脾胃疾患은 精氣神血의 形象에서 氣, 神科는 七情, 七氣로 多發하였고, 精, 血科는 精血虛가 많았는데, 그 治法은 氣, 神科는 行氣, 消導, 化痰, 降火이며, 精, 血科는 補精, 補氣, 補血이 주로 多用되었다. 脾胃疾患이 外部로 나타나는 주된 部位는 面色, 眼의 陷沒상태, 입술의 好惡, 魚際의 색깔, 肌肉의 盛衰 등에 많이 나타났다. 脾胃疾患에서 六經形은 氣血多少의 偏差와 症狀의 發顯部位로 나타나는 六經의 形症을 區分하여 治療해야한다.

참고문헌

1. 東醫寶鑑國譯委員會 編譯,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6.
2.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3.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 ~ VI, 서울, 芝山出版社, 1996~1998.